

담당_홍선화

故 이경지 여사 동상 봉영식 개최 도곡초등학교 설립 공로 기념 행사



서울 도곡초등학교는 지난 2월 26일故 이경지 여사의 동상 봉영식을 가졌다.故 이경지 여사는 (사)대한제과협회 1~8대 회장을 역임한 조승환 고문의 모

친으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여성계몽운동과 교육에 헌신했으며 5천 평의 땅을 국가에 기증해 도곡초등학교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승환 고문을 비롯한故 이 여사의 유족들과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조병찬 수석 부회장, 김상엽 기술고문, 이선우 前 사무총장, 한국제과학교 조성완 행정실장, 민관식 前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11회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홍보 세미나 개최 지역 맞춤형 세미나로 5개 지역 순회

(사)대한제과협회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청주, 부산, 대전, 수원, 광주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제11회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 홍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주최하고, 캘리포니아 호두협회에서 후원하는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로 5월 24일 청주를 시작으로 25일 부산, 26일 대전, 27일 수원, 6월 3일 광주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각 지역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세미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1일 김영모 회장은 (사)대한제과협회회관 회장실에서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미셸 맥닐(Michelle Mcneil) 마케팅 이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며 제과재료 수입 관세인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미셸 맥닐 이사는 제과 재료값 인상의 주범인 수입 관세인하를 위해 협회가 관심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영모 회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로 공조체제를 갖추자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남아시아 지진해일 구호성금 기탁 따뜻한 정성 모아 남아시아에 온정 전달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3월 20일 지진해일(쓰나미) 복구를 위해 전국 지회·지부에서 모금한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논산시지부(41만3천 원), 광주시지부(20만 원), 상주시지부(10만 원), 서울 서부지회(10만 원), 강동·송파지회(10만 원) 등에서 모금한 금액으로 조성된 성금으로 불의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회원들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이루어졌다.

Prism

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회·지부 사무국장 회의 개최 협회 효율적인 운영 위한 실무 협의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3월 11일 (사)대한제과협회회관 회의실에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회·지부 사무국장들이 회의를 갖고 효율적인 협회 행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는 중앙회 정일석 사무총장의 주제로 서울시지회실무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원 사무국장(동부지회)을 비롯해 11명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비 및 월간 <베이커리> 대금 입금, 표창장 양식 및 규격, 월간 <베이커리> 기사외 양식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각종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그동안 각 지역별 임원 순으로 작성했던 회원명단을 각 지역별 제과점 상호를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일석 사무총장은 회원들과 직접 부딪치며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협회 운영을 위해 중앙회에서 보내는 공문이 회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정성원 사무국장은 적은 인력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무국장의 업무특성과 고충을 토로하며 "앞으로 중앙회와 긴밀한 협조로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여성기술인경연대회 홍보 세미나 개최 8개 지역에서 총 353명 참석

(사)대한제과협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제2회 여성기술인경연대회 홍보 세미나가 353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쳤다. 협회가 주최하고, (주)선인에서 후원하는 여성기술인경연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22일 안산에서 시작해 3월 11일 부산을 끝으로 8개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한 결과 35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제2회 여성기술인경연대회 홍보 세미나 참석인원

날짜	지역	참석인원
2월 22일	안산시지부	50명
2월 25일	서울 강북	32명
2월 26일	부천시지부	60명
3월 3일	전라북도지회	25명
3월 4일	충청남도지회	40명
3월 9일	대구·경북지회	63명
3월 10일	울산광역시지회	53명
3월 11일	부산광역시지회	30명
계		353명

김영모 회장 취임 후 첫 회장단 회의 개최

8명의 부회장 유임, 제휴카드 폐지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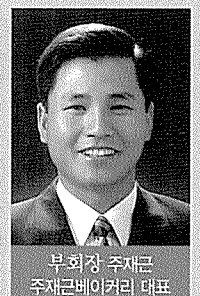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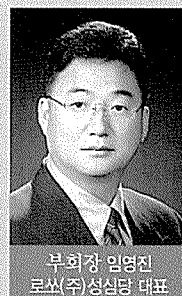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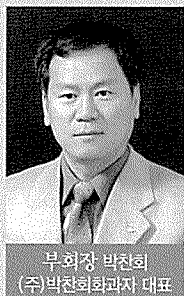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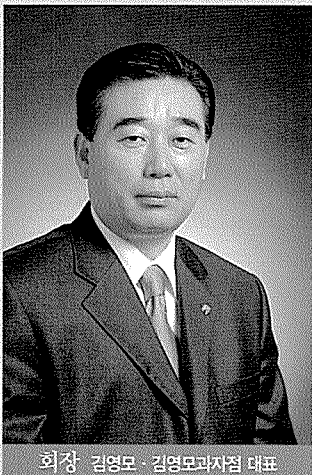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본 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2005년도 첫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는 경선을 통해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김유복·김옥중·김흥연·박찬희·임영진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월간 <베이커리> 책값 인상과 제휴카드 폐지 등 협회 당면과제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장단은 당초 이사회에서 의결된 월간 <베이커리> 회원 가격 1천 원 인상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되고 5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긴급히 편성한 예산안을 살펴 보면서 앞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사 스스로 총회에서 반복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제과업계의 시급한 당면과제이자 회장 선거에서 양 후보와 대의원들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던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폐지를 놓고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지역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윈도우 베이커리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치명타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모기업의 후광을 등에 업고 영역을 넓혀가며 이동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할인하는 것이라고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림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제휴카드 폐지에 '올인' 하며 윈도우 베이커리 생존권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 24대 회장으로 3년 동안 재임하는 김영모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으로는 조병천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김성환·김유복·김옥중·김흥연·박찬희·유현식·임영진 부회장 등 8명의 부회장이 또다시 위촉됐고, 서남석(파리크라상 전무)·주재근 부회장(주재근베이커리 대표)이 신임 부회장으로 위촉됐다.

김영모 회장은 “올해는 제과업계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한편 제과업계의 숙원사업인 제과업종 찾기에 주력하며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사업을 수정 보완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 또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국제빵·과자경진대회에 프랜차이즈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뜻깊은 행사로 빛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 대한제과협회 제24대 회장단



Local News News

담당_홍선화

서울 동부지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서울 동부지회(지회장 김종주)는 지난 3월 7일 휘경동에 위치한 우리 웨딩문화원부페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부지회는 지난해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및 수지 결산 승인받는데 이어 200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김종주 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불경기때 따른 회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았다"며, "동부지회는 기술·마케팅·경영 등 우리 지역에 딱 맞는 맞춤 세미나를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김종주 지회장을 비롯해 부지회장 2명, 감사 2명 등 지회 임원의 유임을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조병천 수석 부회장, 서울시지회장협의회, 이천세 동대문구 의원을 비롯한 내외빈과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동·송파지회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강동·송파지회는 지난 3월 9일 강동구 원일부페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회장에 양성규 (마이스터과자점) 씨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



양성규 신임 지회장

동·송파지회는 지난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을 인정받고 200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양성규 신임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다. 임기 동안 회원의 단합과 강동·송파지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회장협의회, 협력업체 관계자,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남·서초지회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강남·서초지회(지회장 홍종식)는 지난 3월 16일 대치동 풍림부페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수 회원에게 각각 중앙회장상, 서울시지회장협의회회장상, 강남·서초지회장상을 수여하는데 이어 임기가 끝난 홍종식 지회장이 재신임 받

고 지난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 2005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홍종식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과업계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회원이 많은 줄 안다. 앞으로 협회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처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하며 회원들이 더욱 합심해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중앙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회장협의회, 연관업체 인사, 회원 등 모두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부지회 대보름 척사대회 개최



서부지회(지회장 신홍중)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지족리 오리나라에서 대보름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즐거운 윷놀이를 하며 임원들과 회원들이 결속을 다진 이날 행사에는 신홍중 지회장을 비롯해 40명이 참석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았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과우친목회 前 총

무인 김흥기 회원이 차지해 전동드릴을 부상으로 받았으며, 금상은 임중모 부지회장, 은상은 박성원 부지회장, 동상은 박복만 감사, 장려상은 남규현 이사가 차지해 부상과 함께 축하를 받았다.

중부지회 개최 농아인협회 롤케이크 120상자 후원

중부지회(지회장 이기철)가 작년 12월에 이어 또다시 '사랑의 빵'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2월 26일 청각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한국농아인협회 용산구지부(지부장 황중호)가 불우 농아인들을 위해 마련한 '새해맞이 위안행사'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롤케이크 120상자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 행사는 경기 불황으로 제과업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기철 지회장을 비롯해 하택근, 유경오, 최주홍, 조국형, 이상용, 여창원, 신동순, 조병수, 서순관, 이원화 씨 등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아인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사했는데 자못 의의가 크다.